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해피바라기' 활동 본격화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우수연)은 사회적 고립위험에 놓여있는 고위험·위기가구의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고독사 예방,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우리동네 함께돌봄단 '해피바라기'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전주시복지재단 '복지공동체 온도플러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완산구 '해피바라기'는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완산구 주부들의 자원봉사 모임인 해바라기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활동을 벌인다.

'해피바라기'의 첫 번째 사업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여름을 맞아 보양식인 삼계탕 등 꾸러미를 전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월 2회 이상 전화, 방문, 음식나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여 지역합계 돌봄체계를 마련하는 활동을 벌이게 될 해피바라기는 지역맞춤형 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벌일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군산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원순환과 김지현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도내 시·군의 우수한 세외수입 발굴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공유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 도모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공공소각장)에서 발생한 '지자체 귀속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판매를 숨겨진 세외수입원 발굴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이번 발표대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작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를 통해 11억 원의 세외수입을 거뒀으며, 앞으로도 매년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과 분권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김지현주무관



왕궁농협-기흥농협, 상호협력 상생자금 전달

전북농협(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지난 1일 관내 왕궁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원의 일환으로 경기 기흥농협과 상호협력력을 다지며 '상생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기흥농협(조합장 한규혁),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본부장 엄병식)과 왕궁농협(조합장 김조흥),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가 참석하여 농협간 상생가치 실현과 농협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견교류가 동반되었다.

기흥농협은 왕궁농협과 상호협력 동반 성장 다짐의 일환으로 상생자금(출하선급금) 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왕궁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활성화 및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상근 기자



장수문화원, 문화학교강좌 스토리텔링 발표

장수문화원에서 문화학교강좌 계남면 흥학당 11가문 스토리텔링 발표 및 토론회를 지난날 31일 계남면사무소 강당에서 장수군의회 최한우 의장, 한병태 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임원과 회원 그리고 계남면민들과 흥학당 11가문 후손 6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는 계남면 흥학당 11가문 영상발표, 삼판서 스토리텔링 영상발표, 흥학당의 위상과 계승방안 모색에 대한 박수섭 선생의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장원기박사, 한병태 원장, 11가문 후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좋은 제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우수자원봉사자 우대 혜택 확대

익산시, 원광대병원과 협약 체결... 종합검진·장례비 20% 감면

익산시가 봉사의 숭고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을 강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원광대학교 병원은 지난 1일 '자원봉사자 건강 분야 우대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원광대병원 외래과 일원홀에서 진행됐으며, 자원봉사센터 임양섭 이사장과 강태순 센터장 원대병원 최재창 행정처장과 조상현 대외협력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시 우수자원봉사자 본인과 배우자·직계 가족(부모·자녀)은 △종합검진비 20% 감면 △장례문화원 장례비 20% 감면(식당·매점 제외) 혜택을 받게 됐다.

익산시는 건강뿐 아니라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자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

전년도 봉사활동 누적 8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들은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가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여성화관 수강료 면제, 보건소 건강검진 등 총 25개 항목의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혜택 이용 건수는 320건으로 전년 동기 14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스마트주차장 요금 50% 감면, 국민생활관·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할인 등 실질적 편의를 더한 정책도 운영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봉사자들의 자긍심 증대와 지역사회 봉사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창 행정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익산시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양섭 이사장은 "이번 건강분야 협약으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건강뿐 아니라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자 혜택을 넓혀가고 있다.

전년도 봉사활동 누적 8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들은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가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여성화관 수강료 면제, 보건소 건강검진 등 총 25개 항목의 우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우대혜택 이용 건수는 320건으로 전년 동기 14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스마트주차장 요금 50% 감면, 국민생활관·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할인 등 실질적 편의를 더한 정책도 운영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봉사자들의 자긍심 증대와 지역사회 봉사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우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창 행정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익산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익산시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양섭 이사장은 "이번 건강분야 협약으로 우수자원봉사자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강살리기진안네트워크, 초등생 30여명 대상 환경교육

강살리기진안네트워크(팀장 김민아)는 지난날 31일 '함께해요!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교육을 진안읍 군산리 세모네모 도서관에서 초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환경교육은 지구온난화와 전자쓰레기에 대해 알아보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특히 학생들은 북극곰피규뮌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환경체험활동을 하고 전자쓰레기에 대한 책도 살펴보았다.

강살리기진안네트워크 김민아 팀장은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게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직접 체험하고 중요성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세모네모 도서관 유지화 운영자는 "해마다 강살리기진안네트워크와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발족한 강살리기진안네트워크는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다양한 지역사회 단체들도 참여해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구성해가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병원, 성인 암 생존자 이차암 예방 의료비 지원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진료·검사비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지역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이차암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사회복지후원회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암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성인 암 생존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총 1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진료 및 정밀 검진 비용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전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송은기 교수의 진료를 통해 개인별 질환 특성에 맞춘 암종별 진료 및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암생존자는 주요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재발 혹은 전이의 위험성이 남아있는데 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암생존자의 이차암 예방 및

조기 발견에 의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장 송은기 교수는 "많은 암 생존자들이 치료 후에도 불안 속에서 생활하지만,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꼭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암 치료 이후에도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이차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의료취약계층 암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건강 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모집 일정은 이달 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접속 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문의는 전북대병원 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에 전화(063-250-1947, 1948) 통해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정읍원에 농협로컬푸드 소비자 체험행사 열어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과 정읍원에농협(조합장 이대건)은 최근 정읍원에농협 인근 소재 체험장에서 소비자 대상 로컬푸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농상생 체험공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며 지역농업의 현장을 체험하고 생산자들과 교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정환 본부장(전북농협), 이대건 조합장(정읍원에농협), 박 의 의장(정읍시의회) 및 의원 김순기 지부장(농협정읍시지부), 이성진 센터장(정읍원농협보존센터), 허철원 회장(정읍원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 10명, 소비자 20여명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확한 농산물은 일부 현장에서 시식하고 지역사회에 기부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체험을 시작으로 8월 배추수확, 11월 감자수확 등 계절별 맞춤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대건 조합장은 "꾸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확의 기쁨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이 같은 자리가 농업의 진정한 가치를 나누고 지역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단이 함께 성장하는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정읍산림조합, 산림조합금융 업적평가 전국 2위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최봉관)은 지난날 30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142개 지역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업적을 평가한 결과 2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이날 2일 밝혔다.

정읍산림조합 최봉관조합장은 임직원과 조합원, 고객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 덕분에 정읍산림조합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최봉관 조합장은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더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은행을 만들 것을 다짐하였고, 지난 해부터 정읍지역 모든 신생아들에게 10만원 축하통장을 만들어 준 것을 계기로 불우이웃돕기와 조합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정의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구강 이동 진료 본격 추진

남원시는 최근, 구강 이동진료차량 제막식을 가졌으며, 읍면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구강 이동진료'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지역 내 구강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농촌지역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구강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에 남원시가 선정되며 국비 지원이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은행, 시원키트 60상자 남원시에 기탁

남원시는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에서 시원키트(COOL) 키트 60상자(한가액 300만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키트는 여름을 시원하게, 선풍기, 팔토시, 쿨타올 등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날 22일 먼저 배송되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속히 배부되었다.

전상의 부행장은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은행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사를 전하며,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동동,기부받은 수박 무더위 쉼터 23곳에 전달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날 30일, 개인 독지가가 기부한 수박 30개를 무더위 쉼터 23개소에 전달하며, 폭염 재난 위기경보에 따라 보호대책마련 및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집중 돌봄기간(7/14~8/15) 동안 1일 1가구 소풍행장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을 방문해 운영지원 예산을 위한 건강상담을 추진하고, 폭염대응 생활요령 안내 및 에어컨 설치점검, 냉방고 설치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독지가 김 모 씨는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부모님 같은 분들이 드시기 하고 싶었다면서 잘 전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